

## 8\_2. 동자동 시절\_2 (1962~1965)

1962년(41세) 1월 11일 안익태 선생 지휘 교향악 연주회에 대한합창단 출연하였고 다음날 안의태 선생님과 회담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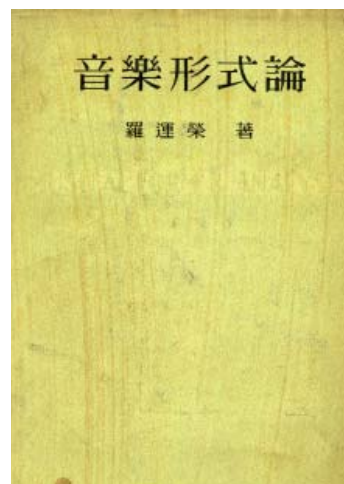
1월 19일 『음악형식론』(민중서관)을 출판하고 다음날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그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을 평할 때에 설계도를, 또한 회화를 논할 때에 구도를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곡을 제작하거나 감상하려면 먼저 음악형식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물론 화성학의 지식만 가지고도 짙막한 악곡 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본격적인 대규모의 작품 -특히 기악곡-을 쓰려면 음악형식론을 반드시 이행(履行)해야 된다.

대위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악형식론에 관한 서적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나는 -나의 부족함을 돌보지 않고- 대학에서의 음악형식론 강의 및 작곡실기 지도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Leichtenritt, Goetschius의 책에서 얻은 바가 많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후략)



2월 28일 메트로 호텔에서 3일간 오페라 「호동왕자와 낙랑공주」(김문웅 대본) 멜로디 작곡을 완료하여 3월 31일 삼일당에서 열린 대한합창단 제8회 정기공연에서 이 작품 중 「얼시구 좋다 동명절」(여성합창), 「영광의 길」(호동의 아리아), 「꽃 피는 나라로」(공주의 아리아), 「사랑의 노래」(이중창), 「어데로 가면 만나보리」(공주의 아리아), 「왜 말이 없느냐」(호동의 아리아), 「통일의 노래」(혼성합창) 이상 7곡을 초연하였는데, 이 작품은 1968년 6월 6일 소각되었다.

4월 17일 메트로 호텔에서 「교향곡 제2번 '1961」(Symphony No.1 '1961)」 스케치를 완료하고, 5월 6일 완성하여 14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국제음악제 <한국 작곡가의 밤>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자신의 지휘로 초연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에 있는 곡목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4·19에서 5·16 군사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테마로 한 작



품이다. 제1악장은 4·19 혁명을 그린 것으로서 소나타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2악장은 선혈을 뿌리고 가신 영령들을 위한 진혼가로서 복합2부분형식이다. 제3악장은 5·16 군사혁명을 그린 것으로 자유스런 론도형식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 보면 나운영은 호텔에서 작품을 썼다는 기록들이 자주 나오는데, 나운영은 대학 입학시험 때 입시위원들이 감금(?)되듯이 스스로 호텔에 감금(?)되기를 즐겨했다. 나운영의 작품 쓰는 버릇은 매우 독특했다. 다른 사람들은 작품을 쓰다가 잘 안되면 찢어버리고는 다시 쓰곤 하는데 나운영은 대작을 쓸 때면 구상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다. 어떤 곡은 반년 이상, 보통 4개월 이상 구상을 치밀하게 한 다음 머리 속에 그려진 음악을 악보에 옮겼는데 그 방법이 독특했다. 창작메모에다가 일일이 작품의 스타일, 기법, 테마, 중요한 화음 등을 다 적어 놓았다가 구상이 끝나면 일단 스스로 호텔에 감금(?)되어 가족과의 연락도 끊고 한 잠도 자지 않은 채 사흘밤낮을 물만 먹고 기보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버릇 때문에 연주자들이 골탕을 먹기 일쑤였는데, 왜냐하면 연주회는 다가오는데 작곡자는 어디로 숨었는지 연락도 안 되고, 몇일 잠적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보를 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다음 나운영의 작품 쓰는 또 하나의 특이한 버릇은 곡을 한 곡 다 쓴 다음에 다음 곡을 쓰지 않고 동시에 2~3곡을 작곡하는 것이다. 나운영의 책상은 항상 둘 내지 세 개가 있었고 그 각 책상마다 작업 중인 작품이 놓여 있었다. 한 책상에서 곡을 써 나가다가 막히면 옆에 있는 다른 책상으로 가 다른 곡을 써 나가고 다시 그 작품이 막히면 원래의 책상으로 옮겨가 작품을 계속 하였다. 한 작품을 쓰면서도 머리 속에서는 이전에 막혔던 작품에 대해 고심하였고 그러는 동안에 작품이 풀려져 나갔다. 이러한 방법 때문에 항상 그의 작품은 같은 시기에 여러 곡이 나온다.

나운영은 이런 방법 외에도 작곡이 잘 안될 때는 곧잘 버스를 타고 혼자 다니기를 즐겨 했다. 무작정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다 보면,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라 환경이 바뀌니까 새로운 구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또 곡조가 전혀 떠오르지 않으면 비 오는 밤에 우산 없이 비를 출출 맞으며 걸어 다니기도 하였다. 또 어떤 때는 영화구경을 갔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영화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곧장 밖으로 나와 작품메모를 하기도 했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나운영의 바지 뒷주머니에는 항상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아주 짧은 연필과 이면지를 잘게 자른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적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75)</sup>



75) 1986 KBS TV '11시에 만납시다' 인터뷰 내용

5월 15일~17일 서울음악제에서 안익태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의 합창을 지도하였다.

6월 28일 <대한합창단 제9회 정기공연>을 국립극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음악회에서 김정준 작시, 이삼은(李森殷) 작곡 칸타타 「이스라엘」을 초연하였다.

8월 21일~24일 중앙공보관 주최 우리 민요 합창 강습회에서 「한국음악의 현대화와 화성 처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고, 8월 21일~25일 대한예  
술교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합창단이 후원한 제3회  
교회음악강습회를 개최하였다.



10월 1일 연세대학교 지방순회음악회(속초, 강릉, 묵호, 수원, 인천)에서 스트라델라 작곡 「주여 불상히 보소서」와 고달트 작곡 「조스란의 자장가」 2곡을 첼로 독주하였고, 4일 연세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였다.

10월 29일 한국 챔버 심포니를 창립하고 상임지휘자에 취임한다. 나운영은 창작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 속에서 그려진 작품을 연주를 통해 듣고 싶어 했다. 성악곡이나 기악곡은 그런대로 연주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실험무대인 교향곡은 여간해서는 발표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나운영은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연주하기로 결심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걱정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음악이 먼저였기 때문이었다.

11월 3일 『대학 음악통론』(이상사)을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1958년에 출판한 표준 음악통론을 수정·증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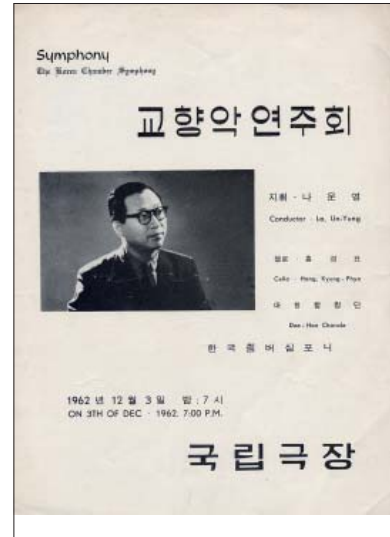
11월 18일 <대한합창단 제10회 정기공연>을 삼일당에서 개최하였는데, 바하(J.S.Bach)의 「농민칸타타(Peasant Cantata)」 전곡을 한국 초연하였다.

11월 24일 나운영은 연세대 교수사택 자리가 나오자 그곳으로 이사할 것을 결정한다. 나운영은 신촌 봉원동의 조용한 풍경이 마음에 들었고, 큰딸은 이화여중, 작은딸은 정신여중, 아들은 이대부국에 다녔으므로 자녀들의 통학에도 도움이 되었다. 더욱이 나운영을 강하게 이끈 것은 '맹모삼천지교'라고 했는데, 자식들이 동자동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유치원은 그대로 놔둔 채 동자동 살림집만 잘 아는 이에게 맡기고 신촌 봉원동으로 필요한 짐만 챙겨서 일부 이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말썽이었다.

그 많은 책과 레코드를 다 가지고 갈 수 없어 그냥 동자동 집에 놔두고 갔는데, 오래된 악보들이 그 만 화장실용 휴지로 둔갑한 것이다. 동자동 집에 이사 들어온 아이들이 그랬던 것이다. 그 당시는 지금 처럼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던 시절이 아니다. 신문지나 포장지를 잘라서 못에다 꽂아놓고 불일을 보던 그런 시절이다. 그러니 오래된 악보야말로 부드럽기가 최고일 수밖에... 책 하나만 안 보여도 부들부들 떠는 나운영이 이 사실을 알고 그대로 넘어갈리 없었고 결국 3개월 만에 다시 동자동으로 돌아온다. 겨울휴가를 다녀온 셈이다.

12월 3일 한국 챔버 심포니는 국립극장에서 창립공연으로 <교향악 연주회>를 개최하는데, 그 초청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음악수립에의 기여
2. 국민정서 순화에의 적극적인 참여
3. 올바른 학교음악교육에의 협조
4. 국제적인 음악의 교류-를 목적으로 아직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을 연구 발표하기 위하여 발족을 본 「한국 챔버 심포니」에서는 다음과 같이 창립 공연을 가지오니 민간단체인 본단의 지도 육성을 위하여 부디 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회에서 그리그(Grieg)의 「홀베르그 조곡」과 베베른(Webern)의 「교향곡」을 한국 초연하였고, 하이든(Haydn)의 「첼로 협주곡」을 홍경표의 첼로 협연으로 연주하고, 바하(Bach)의 「농민 칸타타」 전 24곡을 연주하였다.

12월 20일 강소천과 함께 편집한 『주일학교 찬송가』(대한 기독교 서회)가 출판되었다.

12월 21일 오후 5시 광주YWCA 초청으로 광주 동방극장에서 <한국챔버심포니, 대한합창단 초청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 음악회는 한국챔버심포니가 나운영 작곡 「파라문의 분수」를 연주하였고, 대한합창단이 나운영 편곡 「한국민요연곡」 및 「크리스마스 캐롤연곡」을 연주했으며, 유경순 독창, 조엽 바이올린 독주, 홍경표 첼로 독주, 그리고 새로나 소녀합창단이 찬조 출연하였다. 철저한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세우고 강행한 이 공연은 결국 청중동원에 실패하고 만다.

여관비와 식대 등을 공연수익으로 다 해결하리라 믿었던 나운영으로서 난처한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이다. 외상값을 해결해야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데 돈은 없고, 이때 총무를 맡았던 안병철이 해결사로 나





섰다. 스스로 여관에 인질로 잡힌 채 나머지 단원들을 하나 둘 씩 빼들려 여관을 빠져나가게 하였다. 한 가지 문제는 어쨌든 해결했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였다. 기차표 살 돈이 있을 리 만무였으니... 그 래도 서울로 올라가야했기에 단원들은 기차표도 없이 객실 여러 군데에 나누어 타고는 차표 조사를 할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척 이 칸 저 칸 옮겨 다니며 피해 다녔다고 한다.

한국 챔버 심포니는 결국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 광주 공연을 끝으로 해산하고 만다. 나운영은 음악



적인 재능은 뛰어났으나 사업적인 재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의욕만 가지고 무모하게 도전한 한국 챔버 심포니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야 말았다.

12월 예총 산하 한국음악협회 초대 작곡부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공보처 신인 예술상 심사위원에 취임하였다.

1963년(42세) 2월 12일 동방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인수(金仁洙) 선생 제4주기 추도회에 참석하였다.

2월 25일 봉원동에서 다시 동자동으로 이사하였다.



3월 14일 문교부 장학위원으로 취임하였고, 16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시간강사를 맡았다.

3월 24일 「교향곡 제3번」(Symphony No.3)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단악장 형식의 곡으로서 3·5·6·7·9·12음 음계를 사용했고, Piano와 Celesta로 Chance operations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Harmonia Ostinato기법을 창안, 시도하였다. 나운영은 토착화+현대화의 본격적 시도를 한 작품이라고 하였다.<sup>76)</sup>

3월 25일~26일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KBS 교향악단 교향악 연주회>에서 「교향곡 제1번 ‘한국전쟁’」을 나운영이 직접 객원 지휘하여 재연하였다.

5월 23일 『작곡법』(이상사)을 출판하였는데, 그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이전(音樂以前)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고등 기법을 구사했다 하더라도 작품 내용이 공허, 유치, 저속해선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법이전(技法以前)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의욕적인 작품을 쓸려고 하더라도 기법이 미숙해선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은 음악이전과 기법이전을 극복하려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요즈음 국악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크게 논의되고 있다. 민족적 아이디어를 현대적 스타일로 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세계성을 띄운 민족음악을 창조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7월 1일 한국 기독교 연구회 예술부장에 취임하였다.

7월 22일~26일 대한합창단이 주최한 제4회 교회음악강습회를 개최하였고, 마지막날 음악예배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주하였다.

7월 27일 YWCA강당에서 수재민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대한합창단 제11회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는데, 조의수가 반주를 하여 나운영 편곡 「신민요연곡」을 발표하였다.

76)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6쪽

8월 6일~8일 진해에서 교회음악강습회를 하였고, 30일 중앙공보관에서 한국 현대음악협회 주최로 홍난파 선생 22주기 추도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홍난파 선생의 예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10월 25일 『Exotic Suite for Piano』(이상사)를 『표준 피아노 명곡집』의 부록으로 출판하였다.

11월 23일 난파기념사업회 발기총회가 있었고, 27일 **난파기념사업회 이사에 취임**하였다.

12월 1일 성남교회 성가대 지휘 근속 15주년 표창을 받았다.

12월 3일 한국 찬송가협회 발기총회에서 작곡분과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숙명여자대학교는 사임**하였다.

**1964년**(43세) 1월 5일 결혼주례 제1호로 박재호의 누이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였다.

나운영은 주례 부탁이 들어오면 무척 좋아했다. 아침부터 흰 장갑을 끼고서 거울을 보고 또 보고 하였다. 나운영은 주례사는 짧아야한다고 늘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너무 짧아서 좀 문제인 경우도 있었다. 나운영의 결혼 주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sup>77)</sup>

나는 결혼 주례 때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도움으로써 아무쪼록 민주주의적 가정을 이루라”는 말을 꼭 하였다. 성경 말씀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으로서 이 말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성경 말씀을 주종(主從)관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부는 항상 상대적인 관계이니 만치 어느 한쪽에 순종을 요구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음악적으로 설명한다면 마치 소나타 형식에 있어서의 제 1주제와 제 2주제의 관계와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베토벤의 음악에 있어서의 남성적인 제1주제와 여성적인 제2주제, 또한 반대로 브람스의 음악에 있어서의 여성적인 제1주제와 남성적인 제2주제처럼 개성이 다른 부부가 제시부에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발전부에서 모진 세파를 헤쳐 나가며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재현부에서 행복스러운 생애를 마치는 - 이상적인 모델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대위법적인 악곡에 있어서의 주선율과 대선율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브람스처럼 독신주의자(?)라면 모르되 남과 여가 한 마음, 한 몸을 이룬 이상에는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정>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 아닌가--.

결혼생활을 소나타 형식에 빗대어 설명했는데, 음악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몰랐을 것 같다. 다행히 결혼 당사자들은 주로 제자들이었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평생 간직하고 살

77)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272쪽.

수 있었을 것이다.

1월 16일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1887~1964) 「조가(弔歌)」를 작곡하였다.

3월 1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장에 취임하였다.

3월 24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시울 시립 교향악단 제113회 정기연주회에서 「교향곡 제3번」을 직접 객원 지휘하여 발표하였다.

4월 4일 예술가곡 「초혼」(김소월 시)을 작곡하였다.

4월 11일 YWCA강당에서 <대한합창단 제12회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는데, 마지막 순서로 나운영 작곡 「부활절 칸타타」를 연주하였다.

5월 논문 「나의 작곡기법 공개 1-교향곡 제3번을 중심으로」를 월간 음악세계에 발표하였다.

5월 8일 「피아노 협주곡 제1번」(Piano Concerto No.1)을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신고전주의적 작품으로서 제1악장의 제1주제에서 Chime Chord를 사용함으로써 편정의 효과를 살렸으며 제3악장에서는 단2도의 음향을 애용하였다.<sup>78)</sup>

6월 10일 나운영 제1수상집 『주제와 변주』(민중서관)을 출판하고 27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나운영은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평론가도 수필가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15 해방이후 17년간 작곡활동과 교단생활을 하는 한편 -요청에 따라- 신문, 잡지 등에 발표했던 것을 추려 모아 이 조그마한 책을 내놓게 되니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민족적 아이디어와 현대적 스타일에 의한-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민족음악을 수립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8월 2일 교회음악강습회를 위해 진해로 내려가면서 「교향곡 제4번」 작곡을 착수하였고, 6일 ~ 8일 진해에서 열린 교회음악강습회에서 강연하였다.

8월 29일 『난파 동요 100곡집』(세광출판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9월 8일~9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인 <교향악 연주회>에서 장혜원의 피아

78)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7쪽.



노와 KBS교향악단 협연으로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나운영이 직접 객원 지휘하여 초연하였다.

10월 14일 〈나의 새로운 화성체계〉를 창안하였는데 이것은 다음해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다.

10월 29일 함태영(咸台永, 1873~1964) 부통령 「조가弔歌」를 작곡하였다.

10월 31일 「교향곡 제4번」(Symphony No.4)을 작곡하였는데, 이 곡 제2악장에서 점묘적 기법을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제3악장에서는 Rhythm Canon을 창안, 시도했고, 제1악장은 Sonata form으로 되어 있는데 재현부가 생략된 대신 이것이 제3악장에서 비로소 재현되도록 함으로써 음악 형식의 개혁을 시도하였다.<sup>79)</sup>

11월 19일~12월 10일까지 후반기학회 주최로 중앙공보관 음악실에서 「브람스 교향곡 전곡감상회」를 개최하였다.<sup>80)</sup>

**1965년**(44세) 1월 12일~14일 대구에서 교회음악 강습회를 하였다.

2월 4일 「8명의 주자를 위한 시나위」(Shinawi for 8 Players)를 작곡했는데, 이 곡은 원래 「관·현·타악기를 위한 시나위」(Shinawi for Brass·String and Percussion)라고 하였다가 제목을 바꾼 것이다. 이 곡은 조성과 음계가 다른 5종의 테마에 의한 Improvisation으로서 다조多調적인 Canon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sup>81)</sup>

2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시간강사를 사임**하였다.

3월 31일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낭만”」(Violin Concerto No.1 “Romantic”)을 작곡하였는데, 이 곡의 특징은 제2악장에서 La’s Bitonal Chord를 창안·시도한 것이다.<sup>82)</sup> 이 작품을 5월 8일 연세논총에서 출판하였다.

5월 19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열린 세계 문화자유회의 한국본부 주최 〈제1회 현대음악발표회〉에서 「8명의 주자를 위한 시나위」



79)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7쪽.

80) 나운영 년보에는 장소가 아폴로로 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확인 결과 중앙공보관 음악실임.

81)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7쪽.

82)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7쪽.

(Shinawi for 8 Players)를 김선위 지휘로 초연하였다.

연주자를 소개하면 Clarinet 임춘원, Trumpet 정윤민, Alto Saxophone 임준호, Cello 박정윤, Bassoon 윤용석, Vibraphone 나기복, Timpany 최동수, Tambourine 김영복이다.

이 음악회에서 김달성, 이상근, Olivier Messiaen, 윤이상의 작품이 함께 연주되었다.

6월 10일 YWCA 강당에서 창립5주년 기념 <대한합창단 제13회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는데, 이 음악회에서 대한합창단은 비발디(Vivaldi) 작곡 「글로리아(Gloria)」 전곡을 한국 초연하였다.

**대한합창단**은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12월 해산**하였다가 그 아쉬움이 너무 커 다음해 5월 6일 다시 합창단을 소집하여 연습을 재개하였지만 곧 다시 해산하고 만다. 마지막 공연을 한 단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휘: 나운영, 유경순

반주: 변현덕

총무: 전구현, 부총무: 안길웅

단원: 송문자, 윤지연, 이제자, 이청자, 이해경, 이현주, 전경은,  
정미자, 지숙자, 현수정, 김예순, 김정삼, 김현복, 박정자,  
송미영, 이성자, 이정애, 이찬혜, 이춘실, 이해영, 전무자,  
정경원, 조은영, 최정숙, 김수일, 박충남, 박태근, 송영일,  
유기동, 이만방, 이용곤, 한정수, 김두기, 김정일, 김현덕,  
박태승, 안길웅, 은춘표, 이동일, 이영철, 이용우, 이종욱,  
임용찬, 전구현, 최동선

10월 **방송윤리위원회 산하 방송가요 심의회 위원**에 취임하였다.

10월 23일 「교향곡 제5번」(Symphony No.5 'Written in the Serial Technique')을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5·6·7·12음 음계와 류구음계에 음열기법을 적용했고, 12음에 의한 음열에 비화성음을 활용했고 전5악장에 있어서 각각 제1,2,3,4악장의 제3부분이 제5악장에서 종합되도록 작곡하였다. 나운영은 범람 음열기법의 시도와 음악 형식에 대한 개혁으로 볼 수 있는 야심작이라고 하였다.<sup>83)</sup>

11월 초순 <나의 새로운 SOLMIZATION>을 창안하였다.

12월 6일 흥남파, 현제명 문화훈장 추서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12월 22일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1890~1945) 「추모의 노래」를 작곡하였다.

83)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7쪽.